

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 모두발언

1. 모두말씀

- 요즘 금융회사 취업이 '하늘의 별따기'라고 함
 - 그렇게 모두가 선망하는 **금융권의 채용**이
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,
“**공정사회, 공정경제**”를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
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임
- 정부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,
관계부처 합동으로 「**특별대책 본부**」를 구성하여
공공부문 채용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
 - 정책금융을 공급함에 따라
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은 신뢰와 투명성이 요구되는
금융공공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음
- 한편, 최근 국회·언론 등에서
한 은행의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되어
검찰수사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
 - 은행권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중추이고
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인 만큼,
직원 채용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
채용문화 개선에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2. 채용관련 점검계획

- 먼저, 범정부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에 따라,
7개 금융공공기관*에 대해서는
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'특별점검반'을 구성하여
11월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임
 - * 예금보험공사, 자산관리공사, 주택금융공사, 신용보증기금, 산업은행,
기업은행, 예탁결제원
- 이어, 12월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*에 대해서도
추가로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
 - * 한국거래소, 증권금융, IBK신용정보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
- 은행권은 11월말까지 14개 국내은행이
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'자체점검'을 실시하고,
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협력·지원해 나갈 계획임

3. 당부사항

-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
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하여,
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
- 아울러,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
「블라인드채용」이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,
이를 인재유치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
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의 계기로도 삼아주길 기대함

□ 은행권은
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 지도록
인사내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,
또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람

□ 금감원도 은행 경영관리의 적정성이나
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용실태 등 점검차원에서,
필요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임

○ 다만,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는
경영진의 고유 판단영역인 만큼,
인사채용 프로세스의 합리성·투명성 등
절차·시스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□ 채용비리 근절 등 채용문화 개선은
외부 감독기관의 특별점검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며,
개별기관의 자발적 노력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
결실을 맺을 수 있음

○ 특히, 금융공공기관과 은행권은
사회적으로 '선망받는 일자리'를 제공하는 만큼,
오랜기간 동안 채용시스템의 공정성·객관성을
높여왔을 것으로 생각하나,

○ 금번 점검을 통해 느슨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
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함

4. 향후계획

□ 정부도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고,
금융권 채용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
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

□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,
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
기관 예산편성,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겠음

○ 또한,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
금융위 내 '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'를 설치·운영하고,
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
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음

□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
금감원이 확인 후 필요조치를 하고,
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볼 예정임

□ 모쪼록,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
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가족의 마음으로
범정부적인 채용비리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,
금융권 채용문화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